

지역 소식통

정읍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 운영 실적 'A등급'

정읍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정읍단풍마케팅 전문조직(이하 정읍조공)이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5년 통합마케팅 운영 실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도비 성과급(인센티브) 1억6000원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17개 통합마케팅 조직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출하율과 조직화 참여도를 비롯해 매출 성과, 농가 환원 실적 등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과를 냈다.

정읍조공은 지난해 9715톤의 농산물을 출하하며 총 251억원의 매출을 올려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공산출하회 13개 조직과 30개 품목을 재배하는 98명의 농가가 참여해 안정적인 유통 체계를 구축한 점이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단순한 출하 규모 확장에 그치지 않고 농업인 수효를 보전하는 등 실질적인 농가 지원 정책을 추진한 부분도 주요했다. 이를 통해 생산자의 신뢰를 높이고 지역 농산물의 유통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가금농장 195곳 대대적 방역 실태 점검

정읍시가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관내 195개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방역 실태 점검에 나선다.

현장에서 살피는 내용은 △농장 울타리 전실, 소독시설 등 주요 방역시설 설치 및 운영 여부 △축산허량 출입 통제·소독 이행 여부 △출입 기록부, 소독실시기록부 및 가축사육일지 작성 등 기록 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조치는 농가별 방역 취약 요소를 미리 파악해 개선을 이끌고 차단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예방적 차원이다. 중대 문제 경우 확인서와 이행 계획서를 받고 재점검 때까지 고치지 않으면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민선 9기 준비 본격 시동

시 공직자 한자리에... 이학수 시장 "재정 혁신 성과 이어 큰 발전 이끌자"

정읍시는 지난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6월 소통의 날(청원조회)을 개최하고 선거 이후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 추진에 대한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한 모범공무원을 시상하고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꾸러졌다.

이학수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 불을 밝히며 시민을 위해 묵묵히 일해 준 직원 여러분 덕분에 시정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이번 선거 결과는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평가인 동시에 앞으로 더 큰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 달라는 시민들의 기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민선8기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재정혁신을 통해 1546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이를 민생회복지원금, 청년희망자금, 소상공인 지원 등 시민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었다"며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수상과



공공기관 종합점수도 3년 연속 2등급 달성 등 다양한 성과는 직원 여러분의 헌신에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주요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함께 다가오는 민선 9기 공약 사업 준비에도 온 힘을 쏟을 것을 당부했다. 공약별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연차별 이행안(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세워 시민과의 약속을 실질적인 결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폭염 등 자연재난을 대비해 재해 취약지역과 주요 시설물 사전 점검을 강화해 줄 것도 잊지 않았다.

끝으로 이 시장은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실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공직자 여러분도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농악보존회, 서울·광주서 공연 성료

'시네마X국 레퍼토리사이닝'... 작품성·예술성 인정 받아

(사)고창농악보존회가 고창농악과 시네마영상, 미디어아트를 결합한 창작공연 '시네마X국 레퍼토리사이닝'을 지난 5일 서울 강동아트센터 대극장(한강과) 7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극장)에서 선보였다.

'사이닝'은 고창농악의 당산굿 판굿, 풍장굿 등 다양한 마을굿을 바탕으로 한 소리의 성장과 기억을 풀어낸 풍부한 공연이다. 시네마영상 및 고창농악의 기록 영상과 고창농악을 결합한 '시네마굿' 형식을 통해 과거와 현재, 개인의 경험과 공동체의 시간을 무대 위에 담아냈다.

지난해 초연 이후 서사와 무대 구성을 보완해 더욱 확장된 형태로 선보이며, 장편의 흐름과 인물 간 관계성을 강화하고 고창농악 특유의 장단과 몸짓, 현장성을 보다 밀도 있게 구현했다. 특히 이 작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 창작주체 지원사업(AKO Patron)에 선정되며 작품성과 예술적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공연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 공연은 406석 전석이 매진되었으며, 서울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한강 공연 역시 전체 757석 중 500여 석이 사전에 매졌다. 2025년 초연 당시 평론가들은 <사이닝>에 대해 "기억을 통해 전통을 현재의 감각으로 재구성한 작품", "풍물굿의 생동감을 무대 위로 옮겨온 시도"라고 평가하며 전통예술의 새로운 확장 가능성에 주목했다.

홍예림 연출은 "'사이닝'은 고창농악의 기록과 삶에서 출발한 작품"이라며 "굿이 지닌 공동체적 감각과 기억의 정서를 관객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안전한국훈련 평가 국무총리 표창 수상

실전과같은 훈련으로 재난 대응 체계 호평...행안부 주관 우수기관 선정

부안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가 재난관리 유공 안전한국훈련 분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5월 20일 부안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 일원에서 지진과 화재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보다 현실감 있는 훈련 상황 설정을 위해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을 담당하는 부서들로 하여금 훈련 기획단을 구성하고 지난 2024년 6월 12일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실제 지진상황을 고려해 지진뿐 아니라 지진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고강도 복합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훈련을 전개하기로 확정했다.

이를 위해 군은 관내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을 비롯해 민간기업·단체와 유기적인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위기관리매뉴얼에 기반한 임무와 역할을 분담해 매뉴얼의 현장 작동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또 군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해 군청에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재난이 발생한 훈련 현장에 영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현장에 미려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조치사항을 지시하는 등 실전에서 필요한 기능을 집중적으로 활용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부안군, 제71회 현충일 추념식 거행

고창군이 지난 6일 고창읍 덕산리 충훈탑 광장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을 엄숙히 거행했다. 이날 추념식은 '그들이 지켜준 미소, 우리들이 전하는 감사'를 주제로 심덕섭 고창군수, 조만규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원, 고창경찰서장, 고창소방서장, 육군제8008

부대 2대대장, 보훈단체장과 보훈가족, 군민 등 400여명이 참석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국민이례를 시작으로 오전 10시 사이렌과 조총 발사에 맞춘 묵념에 이어 현화·분향, 추념사, 헌시 낭송,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되새겼다. 특히 이날 고창고등학교 2학년 이정

훈 학생이 낭송한 추모 헌시는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며 호국영령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했다. 추념식이 끝난 후에는 충훈탑 아래에 위치한 6·25참전유공자비와 베트남참전유공자 기념비를 비롯해 고창고등학교 내 자유평화전리의 탑과 6.25참전유공자비 등 현충시설을 참배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지난 6일, 부안 서림공원내 호국영령탑에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보훈단체 회원, 기관·사회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을 엄숙히 거행했다. 이번 추념식은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는 2026년 현충일 슬로건 아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6610북면(전

국 동시 묵념)을 시작으로 국민이례, 현화 및 분향, 추념사, 추념공연,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권익현 군수는 추념사를 통해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순간 자신의 청춘과 삶 그리고 목숨까지 기꺼이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이어 "기억은 감사의 시작이며 기록은 역사를 지키는 일이고 책임은 선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우리의 약속"이라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

우를 강화하고 보훈의 가치가 미래세대에 올바르게 계승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군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군민과 함께 보훈문화 확산에 힘쓰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림공원 호국영령탑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지역 출신 호국영령들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공간으로 매년 현충일마다 군민들이 함께 추모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사업 우수기관 선정

부안군은 5일 열린 2026년 구강보건사업 성과대회에서 국민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이번 성과대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 구강보건사업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해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평가에서 군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보건사업 추진과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운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복지시설과 경로당에 구강보건 이동 진료 차량을 운영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구강건강 형평성 향상에 기여한 점이 큰 호평을 받았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